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창조할 수는 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 재학생에 첫 강연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동국대 재학생들을 위한 강연에 나섰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9월 27일 동국대 중앙강당에서 '대학인으로서의 삶'을 주제로 교양강좌를 진행했다.

김 총장은 강연에서 헌법재판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동국대의 미래 비전과 대학생활의 좌표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재학생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동국대 '프라이드 동국 지성 콘서트'는 동국대 2학기 교양강좌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명사를 초청해 매주 한 차례씩 진행된다. 강연은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과 이재범 카카오톡 사장, 오디시 공연가 금빛나 씨 등이 이어갈 예정이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나도 유한하고 남도 유한합니다. 무생물도 유한합니다. 법률상에서도 각종 권리는 생성되고 변경되고 또 소멸됩니다.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가 성주괴공(成住壞空)이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존재론으로 살펴봅시다. 생명체는 매우 다양합니다. 지구상에는 170만 종의 생명체가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를 합하면 약 500만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종의 평균 수명은 100만년에서 200만년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돌아보면 현재까지 300억 정도의 종이 살았으나 99% 이상 멸종했습니다. 멸종은 생태계의 모든 생물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20만 년 됐습니다. 100만년에서 400만년 사이에는 생물학적으로 멸종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존재자체도 지극히 유한한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어슬렁대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행이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치하고 서라도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또 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적 존재론으로 봅시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속에 여러분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의 각 분야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무엇에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정립입니다. '무엇에,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말했듯 우리네 유한한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에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진, 선, 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의'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 외에 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만의 삶이 아닌 이시대 사회속의 존재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치관이 정리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우사인 볼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육상대회 직후 우사인 볼트가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기록이 나온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인 우사인 볼트가 단순히 달리기만 잘하는 흑인으로 생각했지만 이 말을 듣고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생들이라면 이 우사인 볼트처럼 목표를 뚜렷이 정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정할 때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가진 정도면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긍정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비용이 금년 예산안 300조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학생 청년들이 미래 주역으로 준비해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모하든지 추세, 즉, 메가트렌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좁게 보자 말고 멀리 내다봐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 자신은 누가 얘기해주지 않고 끌어주지 않았지만 젊어서부터 목표만은 뚜렷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을 공부해서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변호인이 되자', '그 이후 모교로 돌아와 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교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품었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라

목표를 가진 다음에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가 없는 삶은 성취가 없습니다. 독일 속담에는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유와 서두르는 것은 모순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할 때 서두르지 않으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없으면 성취감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큼니다. 세속적 성취가 아니라 자신이 보람된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대학생 무렵의 미세한 차이는 향후 엄청난 차이로 다가옵니다. 일보, 아니면 반보의 차이지만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100보, 1000보의 차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시절 서둘러서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한 보, 반보 채진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라



는 말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한걸음 과감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벼랑에서 한걸음 더 나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로에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그 뒤에 문구가 사방세계현전신(十方世界現全身)입니다. 한걸음 더 나가면 이 모든 사방세계가 본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자신감과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은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이는 실력이 있어야 나옵니다. 실력을 쌓으려면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집중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간화선에서는 화두를 들고 천착하면 바위라도 뚫는

말이 있습니다. 집중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다르마법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진급 승부는 지금부터다

로버트 루빈이란 미국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루빈노믹스로 세계를 금융위기에 구한 사람입니다 (Rubinomics 루비노믹스로 읽음). 이 경제학자는 처음 프린스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더욱 노력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 하버드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로버트 루빈은 훗날 프린스턴대로 우편을 보냈습

니다. '당신들이 떨어뜨린 인제가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라고.

프린스턴대에서는 이와 같은 답신이 왔습니다. '우리는 귀하와 같은 인재를 몇몇 낙방시켜 하버드 대학에 보내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은 중요치 않습니다. 젊은 날의 좌절도 중요치 않습니다.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인지, 또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승부는 시작될 것입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영속적이고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는 철저해 저야 하고, 만발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 의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낭비입니다. 자기 고유의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궁구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책을 읽어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창조할 수는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학력 사회가 아닌 능력 사회입니다.

한국사회 대학진학률이 80%이지만 능력을 갖추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10년간 한 분야에 집중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Kultur, Schwarz auf weiß' 문화는 흰 것 위에 검은 것, 즉 문화는 바로 책이라는 독일 속담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책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e-북도 있고, 영상물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더라도 꼭 책 한두 페이지는 읽는 것이 습관화 되었습니다. 능력은 책에서 나옵니다.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은 더 높이 보고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이 시야는 책에서 나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

10년 후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미래 우리 사회 지도자입니다.

인도 초대 수상인 네루 수상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간디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디의 인도에 대한 최대의 공헌은 인도인들에게 '아바야'를 준 것이다."

아바야는 바로 용기입니다. 바로 정신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간디는 영국이 지배하는 식민지인들의 마음에서 열강에 대한 공포심을 제거했습니다. 영국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 고난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인도인에게 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용기와 신념이 생기고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지금부터 하는 노력에 따라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열려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그 과정에서 마치 누에가 누에고치에서 어둠을 뚫고 비단을 내놓듯 커 나가길 바랍니다.

가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 준비하면 미래사회에 행복한 동국인이 될 것입니다.

봉안함이 물속에서도 안전하다고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직접 시험할 수 있고, 물 속에서 조차 안전할 수 있는 봉안함은 (주)태림원의 봉안함 안함(安享)이 유일 합니다.



3중밀봉 · 진공함 구조

3중밀봉함 제품소개

발명특허제품

- 발명특허 제품 (특허 제10-0768910)
- 재질 : ABS, 황도, 백도
- 습기, 결로방지 및 완벽한 수분차단 인증 제품
- 부천시 추모공원, 정만 주민자치회 지정 봉안함

습기,결로방지 인증 방법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결로 방지에 관한 과학적 근거 인증.
- 봉안함의 구조가 습기, 결로, 수분유입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내구성(ABS)

- 집어 던져도 깨어지지 않는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음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검증 결과 최대수직압 10.7톤

친환경제품

- "친환경 상품진흥원"에서 친환경 표지 인증 (2008. 7. 3)

부산시 영락공원 장묘운영팀에서 함에 티슈를 넣어 땅속에 묻는 실험 시도 1년후 개봉결과 티슈가 원상태 그대로 보존 되어 있음을 확인

- 현장에서 직접 가능 검증을 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큰 신뢰를 주는 유일한 봉안함.
- 물속깊이 함을 넣어도 함속으로는 단 한방울의 물은 물론 수분의 유입 마저도 완전 차단되어 있습니다.
- 거꾸로 함속에 물을 가득 채우고 뒤집어도 한방울의 물도 세어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태림원

Mobile 010-2257-3887, 02)763-1305 Fax 02)763-1307
서울시 중로구 윤니동 65-1 월드오피스텔 805호